



2002학년도 수시 1 고교장추천전형 논술기출문제

아래의 예시문을 읽고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 제목란에는 주제에 맞는 제목을 쓴다.
- 각 예시문에 들어있는 중심적인 내용이나 견해가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유의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은 쓰지 말 것.
2. 답안은 한글로 작성할 것.
3.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 안팎(±100자)이 되게 할 것.

(1) 싱크대에서 다섯 발자국쯤 걸어가면 사무용 책상 두 개가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고 그 위엔 으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등속이 자리잡고 있다. 소형 스피커 두 개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TV와 비디오도 비슷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가 없으면 음악도 영상도 없다. 그러나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켜는 일이다. 물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도 그것을 끄는 일이다. 창이 없는 이 방에서 컴퓨터는 내 창이다. 거기에서 빛이 나오고 소리가 들려오고 음악이 나온다. 그곳으로 세상을 엿보고 세상도 그 창으로 내 삶을 훑쳐본다.

- 김영하, 「바람이 분다」

(2) It is widely believed that technological society is condemned to authoritarian management, mindless work, and equally mindless consumption. Social critics claim that technical ratio

nality and human values contend for the soul of modern man. My theme is the possibility of a truly radical reform of industrial society.

I argue that the degradation of labor,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is rooted not in technology itself but in the antidemocratic values that govern technological development. Reforms that ignore this fact will fail, including such popular notions as a simplified lifestyle or spiritual renewal. Desirable as these goals may be, no fundamental progress can occur in a society that sacrifices millions of individuals to production.

A good society should enlarge the personal freedom of its members while enabling them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a widening range of public activities. At the highest level, public life involves choices about what it means to be human. Today these choices are increasingly mediated by technical decisions. What human beings are and will become is decided in the shape of our tools no less than in the action of statesmen and political movements. The design of technology is thus an ontological decision fraught with political consequences. The exclusion of the vast majority from participation in this decision is the underlying cause of many of our problems.

- Andrew Feenberg,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3) 도시는 에어컨이나 소품물 같은 과학기술적인 변화 덕분에 기후에 대한 내성을 키워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미국이나 그 밖의 발전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생태계를 통제하지 못하여 자연발생적인 강우, 땅위를 흐르는 빗물, 기온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의 극단적인 양상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지역들이 온난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산업국가의 경제활동 대부분은 기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집중치료 병원, 지하채광, 실험실, 통신, 중공업, 마이크로 전자산업 등의 부문은 아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이를테면 바르샤바로 할 것이냐 홍콩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서 기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 윌리엄 노드하우스, 「온실 경제학」

(4) 수세기 동안 인간은 시간을 측정하는 보다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 중세 시대에 모래시계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해시계도 날이 흐릴 때는 쓸모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갖가지 진기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영국의 알프레드 대왕의 경우 초를 똑같은 길이로 잘라 가지고 다녔다. 시간의 경과를 측정하기 위해 초를 하나씩 차례로 켜던 것이다. 기계식 시계의 발명에는 정례화된 기도 시간과 생활을 중시하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기여한 바 크다. 수도사들은 하루 일곱 차례의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수도원의 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칠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했다.

17세기에 이르러 추시계의 발명으로 공공장소의 대형 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리듬을 따르기보다는 시계의 기계적 시간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다. 허기질 때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였고, 졸릴 때보다는 취침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세상은 순차적이 되었고, '시계처럼 규칙적'이라는 말이 일상적 표현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는 시간에 집착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시계와 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그렇게 나쁜 현상만은 아닐 것이다. 어떤 작가가 말한 바와 같이 시간은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막아 주는 신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 빌 맥레인, 「물고기는 물을 먹는가?」

(5) Global civil society is in one sense a separate social system growing up around international society and giving rise to regimes of its own. Even so, its emergence has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society because it provides a social base for nonstate actors that helps them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which in turn influence the character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emergence of a global civil society is partly a simple matter of material resources. The introduction of the fax machine and the dramatic growth of the World Wide Web, largely as a function of global civil society rather than international society, has allowed nonstate actors to forge effective global alliances that are not subject to national governmental control.

- Oran R. Young, "Global Governance"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초·중고 교육이 지식의 전달에 치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훈련은 미흡하기 때문에 논술시험은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아직도 논술준비를 사고의 체계화보다는 작문 훈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답안을 보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자신의 생각보다는 내용이 평이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지난 해 수시 전형의 논술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을 기대했다. 두 번의 수시에서 제시된 논제는 현대사회에서 기술발전의 문제와 언어의 효용성에 대한 것이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발전의 문제는 논제를 주지 않고 지문만을 제시한 다음 자신이 논제를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논술하도록 했다. 이것은 수험생의 지문에 대한 이해력과 논술을 통한 논리적 분석력을 동시에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언어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몇 가지의 논점만을 제시하고 수험생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논술을 구성하도록 했다. 따라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하는 답안을 기대했다.

이처럼 논제가 주어지지 않은 논술은 자칫하면 자신이 평소에 준비한 논술을 단순히 옮겨 놓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의 수시 논술에서도 그러한 답안들이 많았다. 하지만 논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지문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논술학습서가 평이한 논리나 양비론적(兩非論的) 주장을 모범답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뚜렷이 담긴 글이 돋보였다. 또한 지난해의 채점 결과 수시의 논술답안이 정시 때보다 결코 수준이 높지 않았다. 수시에서는 수능준비보다는 다양한 교과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논술준비도 잘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논술의 채점은 크게 논리적 구성력과 참신하고 창의적인 표현력과 적절한 문장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우선 원고지 작성법과 문법과 같은 기초적인 문장법을 익혀야 한다. 다음으로 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절한 논리적 구성을 하여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문장들로 표현해야 한다. 끝으로 진부한 표현이나 정형화된 서술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나름의 생각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올해의 수시는 여름방학 이후에 치루도록 일정이 되어 있다. 수시의 논술은 대부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학동안 차분히 논술을 준비한다면 수시에서 남달리 높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이 기회에 단순히 논술 참고서나 예상문제만을 준비하기보다는 주위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념이나 사실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술은 입시뿐 아니라 대학생 생활에서도 중요한 지적 훈련이기 때문이다.



2003학년도 수시 1 고교장추천전형 논술기출문제

※ 논제 : 제시문 (가), (나), (다)는 현대 사회에 나타난 소비 현상과 관련된 글이다. 각각의 제시문에 함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소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현대 사회의 소비의 특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답안 작성의 유의 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은 한글로 작성할 것.
3.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 안팎(±100자)이 되게 할 것.
4. 제목은 쓰지 말 것.

(가) 소비는 형식적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보다는 개인 수준의 욕구와 무질서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노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불확정적이고 주변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며, 강제적이고 도덕이며 제도이다. 소비는 하나의 가치 체계이며, 체계가 포함하는 집단 통합 및 사회 통제 기능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다. 소비 사회는 소비를 학습하는 사회이기도 하며, 소비에 대해 사회적 훈련을 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나) 아래의 표는 한국 사회의 계층별 소비 양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단위: %)

항 목	계 층		상		중		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옷은 세일 기간을 이용하여 구입한다.	53.6	46.4	75.4	24.6	68.5	31.5		
예정에 없더라도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면 구입한다.	66.1	33.9	40.7	59.3	18.9	81.1		
비싼 옷을 한 벌 사기보다 싼 옷을 여러 벌 구입한다.	16.1	83.9	39.3	60.7	65.5	34.5		
비싸더라도 유명 브랜드 옷을 구입한다.	52.7	47.3	33.5	66.5	9.7	90.3		
건강 식품을 먹는다.	67.3	32.7	33.0	67.0	12.9	87.1		
식기류의 디자인이나 상표에 신경을 쓴다.	74.5	25.5	47.5	52.5	21.6	78.4		
음식을 잘하는 집을 찾아 다닌다.	89.1	10.9	72.1	27.9	41.4	58.6		
식후에 과일을 먹는다.	85.5	14.5	58.9	41.1	18.5	81.5		

(다) Consumer goods allowed people to free themselves from their old, relatively secure but closed communities and enter the expressive individualism of a dynamic "mass" society. Commodities gave people a sense of freedom. The taste, feel, and comfort of manufactured objects, designed to maximize physical satisfaction and to intensify pleasure and excitement, created new understandings of personal freedom.

In the context of consumerism, liberty is not an abstract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discourse or free speech. It means expressing oneself and realizing personal pleasure in and through goods. Democracy does not mean equal rights under the law or common access to the political process but, more concretely, sharing with others in personal ownership and use of particular commodities. Consumerism was realized in daily experiences, always changing, improving, and being redefined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s in their ordinary but still special lives as children and parents, wives and husbands, and in thousands of other roles.

2003학년도 수시 1 고교장추천전형 논술해설

2003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논술시험은 복수의 지문과 논제를 주고, 수험생들이 과연 얼마나 개별 지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종합할 수 있는가를 평가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평소 많은 글을 읽고,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더불어 개별 메시지들을 논리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논제는 현대 사회의 소비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소비의 특성에 대하여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소비를 하면서 그것이 개인의 가변적인 기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패턴이 무정형적이고 불규칙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개인은 소비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욕망과 자기 가치화의 이면에는 그러한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 혹은 소비사회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 특정한 물품의 구입을 통하여 준거 집단 또는 계층에 편입하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기도 한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대중사회에서의 소비는 소비를 통한 민주주의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비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소비생활을 하는 우리는 정작 소비의 본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험생들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2003학년도 수시 1학기 논술에서 소비 현상의 요인과 특성에 대하여 출제하게 된 것은 무분별한 소비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하여 소비 행위의 실천적 의미와 소비 사회의 본질에 대하여 사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논술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사회의 소비 현상과 관련된 제시문을 읽고 각 글 속에 포함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석된 의미를 모두 동원하여, 현대적 소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제를 생각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대사회의 소비의 특성과 본질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논술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험생의 이해력과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격이 다른 세 개의 글을 지문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문 (가)는 가치 체계로서 소비가 지닌 통제적 성격을 강조한 보드리야르의 글이다. 제시문 (나)에는 한국 사회의 계층별 소비양식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 표를 실었다. 표가 제공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 (다)에는 대중 사회의 소비주의가 함축하는 자기 표현성과 시장적 자유를 지적한 영어로 된 글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은 우선 (가), (나), (다)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각 글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은 소비가 지닌 다층적인 의미를 밝혀야 한다. 즉, 소비 사회가 지닌 ‘강제’의 성격, 사회-경제적 계층에 의해 구조화되는 측면, 그리고 전통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성 등을 구분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제시문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 현상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현대 소비 현상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2004학년도 수시 1 고교장추천전형 논술기출문제

I.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50점)

II. 네 개의 제시문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각 제시문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50점)

<유의 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은 한글로 작성할 것.
3.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I은 총 500±50자, II는 700±100자가 되게 할 것.

(가)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풍부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인색하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의 여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더러 초야에서도 구하고, 더러 항복한 오랑캐 장수 중에서도 뽑았으며, 더러 도둑 중에서도 끌어올리고, 더러 창고지기를 등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당덩이가 좁고 인재가 드물게 나서 예부터 걱정거리였다. 더구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져서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좋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위 구멍과 띠풀 지붕 밑에 사는 선비는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도 등용되지 못한다. 동서고금에 적이 낳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간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나)

Women workers today are overwhelmingly concentrated in routine, poorly paid occupations. Expanding areas of work of a lower-level kind, such as secretarial positions, or retail sales, draw in a substantial proportion of women. These jobs are relatively poorly paid and have few career prospects. Once an occupation has become gender-typed—seen as mainly “a woman’s job”—inertia sets in. Job hierarchies are built around the assumption that men will occupy superior positions, while a stream of women will flow through subordinate jobs. Employers are guided in future hiring decisions by gender labels. And the very conditions of most female jobs lead to adaptive responses on the part of women—low job commitment, few career ambitions, high turnover, seeking alternative rewards in social relations—which fortify the image of women as suitable for only lower-level jobs. These social conditions often tend to reinforce outlooks produced by early gender socialization. Women may grow up believing that they should put their husband’s career before their own.

(다)

Some white Americans or Asian Americans have complained that their children, straight-A students, didn’t get in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ecause the university gives spaces to others. They argue that the only fair approach is to base admissions on academic qualifications. But a straight-A average wouldn’t guarantee admission to Berkeley even if there were no affirmative action, since the university uses admission criteria other than test scores and grades, including a genius for computers, musical talent and geographical diversity. And as a public institution, the university needs to look at broader societal needs, including greater leadership training of minority communities. Serious racial divisions still remain despite the recent major civil rights advances. That’s why colleges and universities created affirmative admissions programs which consider race, ethnicity and gender along with many other factors in college admissions. The idea was to open the doors to promising minority students who lacked educational and social opportunities. The affirmative action should be a temporary measure, but the time has not yet come to eliminate it.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inner-city minority students still contrast dramatically with those of affluent students in the suburbs, where many white families live.

(라)

It has been the fashion in modern times to minimize the importance of innat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to ascribe all the important differences to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However important the latter may be,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individuals are very different from the outset.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would hardly be less if all people were brought up in very similar environments. As a statement of fact, it just is not true that “all men are born equal.” We may continue to use this hallowed phrase to express the ideal that legally and morally all men ought to be treated alike. But if we want to understand what this ideal of equality can or should mean, the first requirement is that we free ourselves from the belief in factual equality. From the fact that people are very different it follows that, if we treat them equally, the result must be inequality in their actual position, and that the only way to place them in an equal position would be to treat them differently.

2004학년도 수시 1 고교장추천전형 논술해설

이번 논술 시험의 주제는 평등이다. 그러나 평등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에 평등의 여러 측면을 다루는 제시문들을 통해 수험생이 스스로 주제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첫째로는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로는 각 제시문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평등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제시문들은 신분차별의 문제점, 여성의 노동에 대한 차별의 문제, 교육의 기회균등 및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행조치(affirmative action), 그리고 평등은 차별(discrimination)을 금지하지만, 차이(difference)를 전제하는 것이라는 평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각기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제시문들의 공통된 주제가 평등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주제에 관한 것이지만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여러 제시문들을 짧은 분량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은, 제시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독해에 기초하여 핵심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곤란할 것이다. 문제 I 은 이와 같은 내용파악 및 요약정리에 관한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문제 II 는 제시문들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평등이라는 주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견해를 논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록 문제 I 에서 수험생들의 각 제시문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것은 단편적인 이해일 뿐이고, 전체적인 연관 관계에 대한 이해는 별도로 평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이라는 주제는 워낙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관련된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술을 할 경우에는 시간과 지면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정형적인 답안모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시문들의 연관 관계에 기초하여 논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논술의 방향과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정형적인 답안모델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생각에 기초한 논술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내용이해와 사고력 및 표현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이번 논술 시험은 두 개의 문제로 구성된 것이 예년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네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독해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네 개의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제시문들이 나타내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하였다. 주어진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찾아내고,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공통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다.

제시문 (가)는 교산(蛟山) 허균(許筠)의 문집인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수록된 유재론(遺才論)의 일부로서,



적서차별과 신분 불평등의 사례이다. (나)는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A. Giddens)의 책 Introduction to Sociology에서 발췌한 것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는 미국의 대학 입학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행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해 “A View from Berkely”라는 제목으로 Chang-Lin Tien이 쓴 글이다. 끝으로 제시문 (라)는 평등의 개념에 대한 것으로 하이예크(F. Hayek)의 The Constitution of Liberty에서 발췌하였다. 이 제시문은 현실적 평등과 이상으로서의 평등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적 지위의 불평등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이상적 평등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 개의 제시문이 나타내는 공통된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도록 한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 모두가 평등 문제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 (라)가 평등 개념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다른 세 개의 제시문 (가), (나), (다)는 평등의 여러 측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제시문 (다)는 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 (나)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문제의 요구대로 제시문의 내용을 충실히 요약하고, 평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검토한 뒤, 차별 극복 방안까지 생각하여 논리적인 글을 쓴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논술, 이렇게 하면 최소한 감점은 막을 수 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문이 딸린 논술문제가 출제되어 왔다. 단문으로 “무엇에 대해 논하시오”가 아니라 두세 가지 지문을 읽고 종합하여 논술하라는 요구였지.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 ①지문을 분석하는 능력, ②논제를 파악하는 능력, ③논리적으로 전개하며 표현하는 능력.

이 세 가지 요구에 입각하여 잘 생각해 본다면 논지전개의 실마리가 잡힐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실수하기 쉬운 그러나 정말 피해야 할 것들을 알아볼까.

Don't be so impatient 너무 서두른 나머지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다는 것. 예를 들어, ‘지문을 요약하고, ~에 대하여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건 문제가 분명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야. 바로 요약과 논술. 그런데 문제를 성급히 읽고는 바로 지문읽기에 들어가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버리게 되지. 열심히 다 쓰고는 나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지문 요약하는 것을 빠뜨린 거야.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잘 썼다 해도 요약을 빠뜨린 만큼 점수가 마이너스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경우는 ‘논술을 하고 나름대로 글의 제목을 붙여 보라’는 게 문제였는데, 다들 열심히 잘 쓰긴 했는데 정작 제목을 붙이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야. 이런 억울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야.

지킬 건 지킨다 논술할 때 보면 ‘몇 자로 쓰시오, ±○○○자’ 이렇게 글자 수 제한이 있다. 이 글자 수 제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정해진 분량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능력이 논술에서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 글자 수 제한을 간과하지 않도록!

설계도면 없이 집 짓기 않기 논제가 파악되면 우선 개요를 짜야 해. 글 한편을 생각만으로 쓸 수는 없지. 흔히 개요짜기를 집을 지을 때 설계도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지? 맞는 말이야. 설계도면 없이 집을 짓는다면 부실공사를 부르지 않겠어!

낙서금지 시험지를 마치 자신의 노트를 사용하듯 하는 친구들이 있나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별표)를 친다든지, 밑줄을 긋는다든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빠뜨린 이야기를 이야기 주머니에 묶어서 화살표로 끌어와서 쓴다든지. 고등학교에서 필기할 때 나도 자주 그러곤 했지만 말야. 이건 엄연히 하나의 시험이야. 교수님들께서는 그런 표시에 익숙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답안지는 왔다 갔다 하며 찾아서 읽어야 하니까 제대로 읽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 시험지에 낙서금지!

예를 들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 버리기 참신한 예나 인용을 하면 자신의 글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은 맞아.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예를 들었을 경우에 한정된 것. 선불러 엉뚱한 예를 든다거나, 필요없는 부분에 사용한다든지(교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길)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또한,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면 즐겨 쓰지 말기 바래. 이런 경우가 있었다. 교수님들은 채점을 할 때 모든 학생들의 글을 한번 쭉 다 읽어보고 다시 하나씩 채점에 들어가신대. 그런데 어떤 글에서 참신하다고 느껴진 예시가 있었나봐. 그런데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예시를 사용했다는 거야. 이건 같은 논술학원을 다녔거나, 같은 논술 책을 봤거나 했다는 이야기이지. 이럴 경우 채점하는 쪽에선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거야, 그렇지?

‘하어튼’이란 표현 버리기 ‘하어튼’이란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야. 앞에서 나온 내용이나 전개한 논리를 썩 무시하고 갑자기 새로운 결론을 내 마음대로 내겠다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이지.

요즘 청소년들? 글을 쓰는 나도 ‘요즘 청소년’ 아닌가? 이런 표현은 읽는 입장에서 보면 어색하겠지?!



2002학년도 수시 2 고교장추천전형 논술기출문제

※ 아래의 세 요소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논술하시오.

- 예시문 (1)과 (2)에 제시된 언어의 특성
- 예시문 (3), (4), (5)에 나타난 현상의 해석
- 미래 사회에서의 언어와 인간의 관계

<유의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은 한글로 작성할 것.
3. 제목은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 안팎(±100자)이 되게 할 것.

(1) 인간은 오로지 언어가 대상의 표상을 그에게 제시하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인간 스스로가 언어를 조직해내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언어 속에 짜맞추어 넣는다. 그리고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게 하나의 영역을 지정한다. 이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오직 다른 하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때는 지금까지의 세계관과는 다른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중략) 그러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고유한 세계관과 언어관을 지닌 채로 우리가 새로운 언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과는 순수하고 완전한 것으로 지각될 수는 없다.

— 빌헬름 폰 훔볼트, 『카비말 연구 서설』

(2) Language has two primary purposes,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In its most primitive forms it differs little from some other forms of behaviour. A man may express sorrow by sighing, or by saying 'alas!' or 'woe is me!' He may communicate by pointing or by saying 'look'.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are not necessarily separated; if you say 'look' because you see a ghost, you may say it in a tone that expresses horror. This applies not only to elementary forms of language; in poetry, and especially in songs, emotion and information are conveyed by the same means. Music may be considered as a form of language in which emotion is divorced from information, while the telephone book gives information without emotion. But in ordinary speech both elements are usually present.

— B. Russell, *Human Knowledge*

(3) 추운 지역에서 눈과 함께 생활하는 날이 많은 에스키모 인의 말에는 눈에 관한 단어가 '가루 눈, 젖은 눈, 큰 눈' 등을 구별할 수 있게 발달되어 있으며, '최대'에 해당하는 말만도 열 개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또, 바다로 둘러싸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말에는 모래에 관한 단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중략)

우리말의 경우 '따비, 꿩이, 쇠스랑, 삼, 종가래, 가래, 행가래, 호미, 낫, 도끼, 고무래, 두레박, 웅두레, 무자위, 장군, 도리깨, 쟁기, 멍에, 보습, 썰레, 길마, 옹구, 망구, 밭채, 꿀, 꿀망태' 등과 같은 농사 용어들이 매우 발달되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에 농경 중심의 사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 교육부, 『고등학교 문법』

(4) It's a beautiful thing, the destruction of words. Of course the great wastage is in the verbs and adjectives, but there are hundreds of nouns that can be got rid of as well. It isn't only the synonyms; there are also the antonyms. After all, what justification is there for a word which is simply the opposite of some other word? A word contains its opposite in itself. Take 'good,' for instance. If you have a word like 'good,' what need is there for a word like 'bad'? 'Ungood' will do just as well—better, because it's an exact opposite, which the other is not. Or again, if you want a stronger version of 'good,' what sense is there in having a whole string of vague useless words like 'excellent' and 'splendid' and all the rest of them? 'Plusgood' covers the meaning, or 'doubleplusgood' if you want something stronger still. Don't you see that the whole aim of Newspeak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society] is to narrow the range of thought? In the end we shall make thoughtcrime literally impossible, because there will be no words in which to express it. Every concept that can ever be needed will be expressed by exactly one word, with its meaning rigidly defined and all its subsidiary meanings rubbed out and forgotten. Already, in the Eleventh Edition [of the Newspeak dictionary], we're not far from that point. But the process will still be continuing long after you and I are dead. Every year fewer and fewer words, and the range of consciousness always a little smaller. Even now, of course, there's no reason or excuse for committing thoughtcrime. It's merely a question of self-discipline, reality-control. But in the end there won't be any need even for that. The Revolution will be complete when the language is perfect.

— G. Orwell, *Nineteen Eighty-Four*

(5)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통신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는 이용자들의 욕구에 의해 일상 언어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소리나는 대로 적기, 음절 줄이기, 이어 적기, 의도적 단어 변형, 이모티콘(emoji) 등이 있다.

일상어와 달리 형태를 바꾸어 통신 분위기를 재미있고 편하게 만들어 친밀감을 나누려는 표현적 동기는 '알지'가 '알쥬'로, '안녕'이 '안녕'으로, '해오'가 '해어' 등으로 변형된 바꾸어 적기를 만들어 냈다. 또 '원일?', '방가' 등 서술어 없이 한두 단어로 대화를 나누는 간결되지 못한 문장, '번개해했음?', '인사안해줘서 뻘쭙' 등 종결어미의 변용 등도 통신 언어의 특징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쓸 때 애용되는 축약어를 실은 사전에 발간했다. 'B4'(Before), 'HAND'(Have A Nice Day), 'TX'(Thanks) 등이 영어로 인정받았다. 기쁘다는 뜻의 :-), 우울하다는 뜻의 :-(, 놀란다는 뜻의 :-O 등의 이모티콘도 사전에 올랐다. 이에 반해 한 국어학자는 "일부 젊은층에서 개성 발휘를 위해 사용하는 통신 언어를 사전에 등록하는 것은 일시적 유행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신문 기사 모음

2002학년도 수시 2 고교장추천전형 논술해설

올해는 두 차례의 수시모집이 작년보다 늦게 진행된다. 따라서 여름 방학과 2학기 중에 논술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시모집의 논술은 정시의 논술보다 다소 실험적인 요소가 가미된다. 작년 수시 1에서는 수험생에게 주어진 제시문을 보고 스스로 논제를 만들고 이에 따라 논술을 작성하게 했다. 이는 논제를 잘 선정하는 것으로 문제의 이해도를 평가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급하게 제시문을 읽고 이에 대해 평소에 준비한 논제를 적고 제시문과 거리가 있는 논술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많았다.

수시 2에서는 제시문을 통해 언어의 특성, 언어의 사회적 현상, 그리고 향후 언어변화의 전망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묻기 위해 유기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 가지 요소를 차례대로 답하는 서술방식보다는 위의 세 가지 내용이 전체의 글 안에 녹아든 하나의 체계화된 논술답안을 기대했다.

고려대학교의 논술에는 여러 개의 제시문이 주어진다. 또한 수시 논술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어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도 평가하게 된다. 영어 제시문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경우가 있지만 독해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논제와 관련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을 주는 것은 논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제시문을 대충 읽고 해석할 경우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안을 적기 쉽다. 예를 들어 작년 2차 수시의 경우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 제시문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언어의 기능성과 효율성이 중요한지, 아니면 언어의 감각적 표현성과 예술성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제시문이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1984년」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술을 했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논술은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독자를 설득하는 글을 말한다. 따라서 논술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논술과정에 객관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논리성과 객관적 타당성의 바탕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읽는 이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논술이다. 따라서 논술에는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야 한다. 종종 자신의 주관이 드러나지 않고 양비론(兩非論)적 내용으로 결론을 짓는 논술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논술 내용의 객관성과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설득력이 없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논술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소에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사회 현상에 비추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때 논제에 대한 체계적인 글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논술은 글을 억지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푸는 시험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지식보다는 체계적 사고가 논술에서는 더 중요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그 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보다 많이 쌓기를 바란다.



2003학년도 수시 2 고교장추천전형 논술기출문제

◎ 아래 세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 논술하시오.

<답안 작성의 유의 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은 한글로 작성할 것.
3.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 안팎(±100자)이 되게 할 것.
4. 제목은 쓰지 말 것.

(가) 푸네스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모든 잎사귀들과 가지들과 포도알들의 수까지도 지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1882년 4월 30일 새벽 남쪽 하늘에 떠 있던 구름들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기억 속에서 그 구름들, 단 한 차례 본 스페인식 장정의 어떤 책에 있던 줄무늬들, 그리고 껌브라초 무장 항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 네그로 강에서 노가 일으킨 물결들의 모양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나 혼자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 세계가 생긴 이래 모든 사람들이 가졌을 법한 기억보다 많을 거예요.”

그는 또한 말했다.

“나의 기억력은 마치 쓰레기 하치장파도 같지요.”

푸네스의 풍요로운 세계에는 단지 거의 즉각적으로 인지되는 세부적인 것들밖에 없었다.

(나) 미국의 경우,

- 1인당 광고 메시지 수신량은 1971년에 하루 560개였으나 20년 후에는 그 양이 6배로 증가하였다.
- 1인당 종이 소비량은 1940년에서 1980년 사이에 3배 증가하였고,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또다시 3배로 증가하였다.
- 1980년대에 제3종 우편물의 증가 속도는 인구 성장 속도보다 13배나 빨라졌다.
- 일반적으로 기업 관리자는 일주일당 3,000면 정도의 서류를 검토한다.
- 1990년에 통신 판매 업체는 평균 600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연간 1,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다)

Teach these boys nothing but facts. Facts alone are wanted in life. Plant nothing less and root out everything else. You can only form the minds of reasoning animals upon facts. Stick to facts, Sir.

—Charles Dickens, *Hard Times*

The view of knowledge and practice has several implications for how to think about learning—and related issues such as spreading best practice, improving performance, or innovating—as well as training and teaching.

In the first place, it takes us beyond information. The idea of learning as the steady supply of facts or information, though parodied by Dickens 150 years ago, still prevails today. Each generation has its own fight against images of learners as wax to be molded, pitchers to be filled, and slates to be written on.

Literature about workplace learning is still laced with ideas of “absorptive capacity,” as if humans were information sponges. Indeed, the idea that learning is mere information absorption may be on the rise today because it allows for more redefinition. If we accept this view of learning, then it’s a short step to talking about such things as computers or robots learning, as if what they do is just what people do. Looking beyond information provides a richer picture of learning.

2003학년도 수시 2 고등학교장 추천 전형 논술고사는 지문 이해 능력, 종합력, 창조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세 가지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것들을 수험생 스스로 하나의 주제로 묶어내도록 열려진 논제를 줌으로써 종합력과 논리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술 문제는 점증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할 젊은 지성들에게 정보의 득과 실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미도 있다. 정보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종합적 사고능력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출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술을 풀어내는 핵심어(key word)는 ‘종합적 사유’이다.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현대인은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는 ‘어떻게(know-how)’가 아니라, ‘어디에(know-where)’를 아는 것이 지식인의 조건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 자체가 얕이고, 정보를 찾는 능력이나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이 학문적 역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정보는 유용한 것이고, 좋은 지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정보 자체가 지식이나 앎과 동일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정보들의 무질서한 축적이 곧 지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식은 정보의 논리적 체계이며, 종합하는 과정이다. 이 체계화의 과정이 없다면 정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보가 정태적이고, 단순한 자료라면 지식은 정보를 조합하고 변형하여, 주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정보 홍수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정보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종합하여 정리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와 지식의 관계를 수험생들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세 개의 제시문이 주어졌다. 각 제시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의 체계적 종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아르헨티나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 『기억의 천재 푸네스』에서 발췌한 것이다. 낙마사고를 당한 뒤 비상한 기억력을 갖게 된 주인공 푸네스의 머릿속에는 사물에 관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푸네스는 그 정보들을 가치있는 의미로 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머리는 정보의 쓰레기장과 같다.

제시문 (나)는 1997년 미국에서 출간된 데이비드 쟁크의 『데이터 스모그』 중 일부이다. 이 책은 정보의 과부하가 인간의 학습능력을 저해하고, 소비자로서의 인간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얼마나 엄청나게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는 Brown and Duguid의 『The Social Life on Information』에 실려 있는 글이다. 18세기의 교육에 대한 디킨스의 풍자는 사실(facts)의 습득만으로서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진정한 지식이란 정보를 필요에 따라 가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답안에서 ‘정보 포화 현상’과 관련하여 각 제시문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점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해석된 의미들을 연계시켜 정보를 유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종합적 사유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을 논리적으로 종합한 답안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4학년도 수시 2 고교장추천전형 논술기출문제

I.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50점)

II. 네 개의 제시문을 연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어 제시문 간의 관계를 밝히고,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50점)

<유의 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은 한글로 작성할 것.
3.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I은 제시문마다 110~140자, II는 700±70자가 되게 할 것.

가)

공도자(公都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대인(大人)이 되며, 누구는 소인(小人)이 되니 어찌하여 그럴습니까?” 맹자(孟子)가 대답하였다. “마음(心)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눈과 귀의 욕망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공도자가 다시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마음을 따르며, 누구는 눈과 귀의 욕망을 따르니 어찌하여 그럴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눈과 귀는 보고 듣기만 할 뿐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물(外物)과 접촉하면 쉽게 유혹된다. 그러나 마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따르면 깨달음을 얻어 미혹되지 않는다. 마음과 눈과 귀는 모두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인데 그 중에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마음을 확고하게 세워 눈과 귀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In the culture of simulation, experiences on the Internet figure prominently. In cyberspace, we can talk, exchange ideas, and assume personae of our own creation. In an interactive computer game inspired by Star Trek, thousands of players spend up to eighty hours a week participating in intergalactic exploration and wars. They create characters who have romantic encounters, hold jobs and collect paychecks, attend rituals and celebrations, fall in love and get married. “This is more real than my real life,” says a character who turns out to be a man playing a woman. In this game the self is constructed and the rules of social interaction are built, not received. In another text-based game, each of nearly ten thousand players creates a character or several characters, specifying their genders and other physical and psychological attributes. The characters need not be human and there are more than two genders. Players are invited to help build the computer world itself. Indeed, the Internet links millions of people in new spaces that are changing the way of our thinking, the nature of our sexuality, the form of our communities, and our very identities.

다)

Some claim that advertisements are effective because they help people who buy the advertised products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But I find this claim to be specious. Consumers lured by the hope of “being like” the person in an advertisement might experience some initial measure of satisfaction in the form of an ego boost. We have all experienced a certain optimism immediately after acquiring something we’ve wanted—a good feeling that we’re one step closer to becoming who we want to be. However, in my experience this sense of optimism is ephemeral, invariably giving way to disappointment that the purchase did not live up to its implicit promise. One informative example of this false hope involves the dizzying array of diet aids, skin creams, and fitness machines available today. The people in advertisements for these products are youthful, fit, and attractive—what we all want to “be like.” And the advertisements are effective in selling these products: today’s health-and-beauty market feeds a multi-billion dollar industry. But the end result for the consumer is an unhealthy preoccupation with physical appearance and youth, which often leads to low self-esteem, eating disorders, injuries from over-exercise, and so forth.

라)

It is not always easy to know yourself—to know who you are and how you came to be that person. And just when you think you know yourself, you change. You get older, form different relationships, develop new interests, go to college, change jobs, or move to a new community, and the process of knowing yourself begins all over again. So your entire life is spent trying to figure out who you are and how to be happy being that person. One of the ways in which you can examine who you are is to look at the important relationships in your life—especially the relationships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Another way to gain insight into yourself is to think in terms of the experiences you have had and how these have shaped who you are. In addition to the relationships and experiences in your life that help to define and create you, the language and culture of your particular community determine in a very real sense who you are. From birth, you absorb and are shaped by the language, values, and patterns of behavior that characterize your own small, immediate group.

2004학년도 수시 2 고교장추천전형 논술해설

이번 논술 시험은 지난 수시 모집 1과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의 텍스트 이해력과 종합적 논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영어 지문을 다수 포함하여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논술 시험 문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문제 I에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지문 독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문제 II에서는 네 개의 제시문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발견하여,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였다. 이는 내용 이해력과 파악된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들은 각각 대인과 소인의 차이, 사이버 세계에서의 자아 정체성, 광고가 만드는 자아 이미지의 허구성, 자기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맥락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아, 자아 실현, 자기 정체성, 정체성 형성 등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맹자(孟子)』 중 대인과 소인의 차이에 대한 공도자와 맹자의 대화 가운데 일부로서, 눈과 귀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을 좇아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정체성과 관련시켜 논의하고 있는 제시문 나)는 Sherry Turkle이 쓴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Mark Alan Stewart의 Real Essay Questions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으로, 광고와 소비가 제공하는 자기 만족의 헛됨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제시문 라)는 Ann Moseley & Jeanette Harris가 편집한 Interaction: A Thematic Reader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에서는 자아가 개인을 둘러싼 주요 집단의 언어, 가치관, 행위 유형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자기 정체성 혹은 자아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들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정체성 문제에 대한 견해를 논술하면 된다. 글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메시지가 조금씩 다른 제시문들을 하나로 종합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리논술 출제범위

구분	인문계열	자연계열
수시1	국민공통수학(10가, 10나) 수학I	국민공통수학(10가, 10나) 수학I, 수학II
수시2	국민공통수학(10가, 10나) 수학I	국민공통수학(10가, 10나) 수학, 수학II, 미적분학

※ 인문계, 자연계 구분없이 수리논술 시간은 90분

수리논술 출제유형

인문·자연계 : 총문항수 4~7 (서술형 1~2, 풀이형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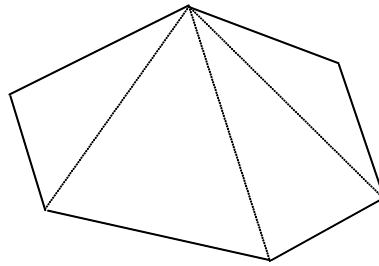
언어논술 출제사항

구분	언어				
	지문	형식	논술문제	글자수	
				요약	논술
인문계	3~5개 (영어지문 절반이상)	지문요약 +논술	지문간의 연관관계, 공통주제, 자신의 의견	각 지문당 110~140자	650~750자
자연계	인문계와 동일	인문계와 유사	공통주제와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서술	각 지문당 100~140자	110~14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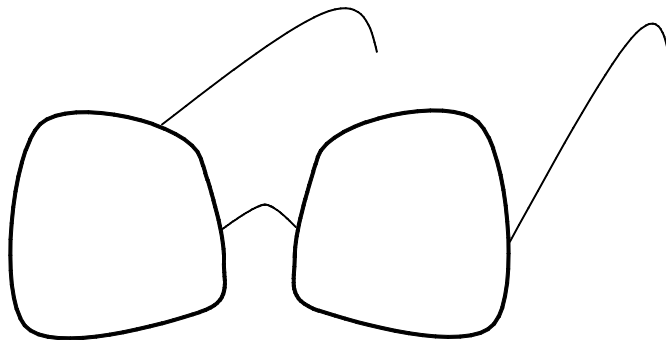
※ 인문계, 자연계 구분없이 수리논술 시간은 120분

[수리 개념적인 문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이들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였다.



안경을 만드는 주식회사 펜시글라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안경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여야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방법을 응용하여 다음 그림에 나타난 안경알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여야.



(출제 의도)

이 문제는 도형, 극한, 수학적 개념의 응용 등을 잘 조합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서술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채점 기준)

우선 안경알의 모양을 넓이를 구 할 수 있는 형태의 도형으로 접근하는 방법 제시 그리고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제시가 주요 채점기준이 될 것이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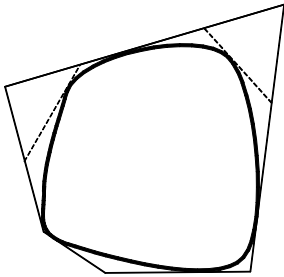
아래의 예시는 안경알의 실제 모양에 근접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각형을 취하였을 뿐이다.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근접해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것이다.

(예시논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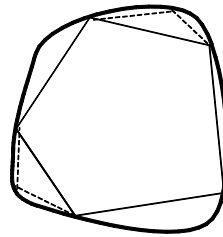
안경알은 양쪽 대칭이므로 한쪽의 안경알 넓이만 구하면 된다. 그런데 안경알의 모양이 쉽게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다. 다각형의 넓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방법을 따라서 구할 수 있으므로 안경알에 외접하는 다각형 A와 내접하는 다각형 B를 만든다. 그러면 안경알의 넓이는 다음의 관계식을 만족한다.

$$(\text{다각형 B의 넓이}) \leq (\text{안경알 한 개의 넓이}) \leq (\text{다각형 A의 넓이})$$

또한 점선과 같이 주어진 다각형의 변의 수를 늘리면 A의 넓이는 줄어들고 B의 넓이는 늘어나면서 안경알의 넓이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다각형 A의 넓이와 B의 넓이를 비교해서 안경알의 넓이의 보다 정확한 근사 값을 구할 수 있다.



외접하는 다각형 A



내접하는 다각형 B

[수리 분석적인 문제]

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 A, B의 개설 이후의 총 누적접속건수를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매달 1일 집계하여 아래의 표를 작성하였다. 이 표를 이용하여 두 사이트의 매월 접속건수와 월간 접속건수의 변화에 대한 추이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두 사이트의 누적접속건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비교 설명하여라.

(단위 : 천건)

대상 사이트	A	B
총 접속건수 집계 시기		
2003년 12월 1일	349	2051
2004년 1월 1일	395	2250
2004년 2월 1일	472	2499
2004년 3월 1일	625	2805
2004년 4월 1일	957	3147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내재되어있는 수리적 의미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는 능력을 평가한다.

(채점기준)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월간 접속건수를 찾기, 이를 이용하여 월간 접속건수의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월간 접속건수를 예측하고 그로부터 총 누적접속건수를 예측하고 비교하는 것이 주요 채점기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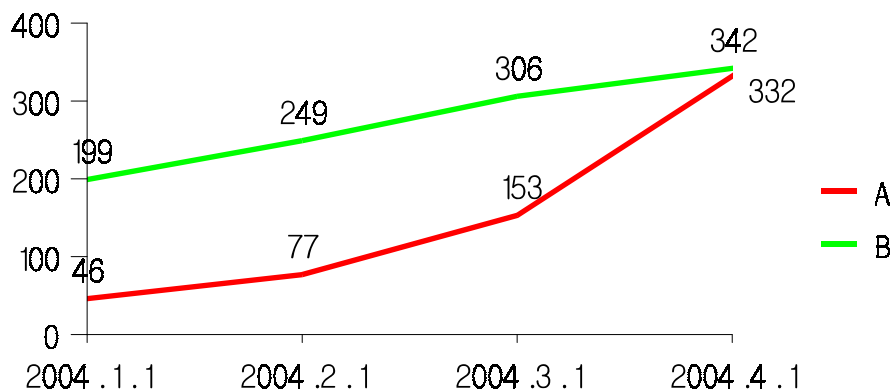
(참고)

아래의 예시논술에서는 월간 접속건수와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서 그래프를 이용하였다. 표를 이용하는 등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것이다.

(예시논술)

절대적 수치로는 사이트 A의 누적접속건수는 사이트 B의 누적접속건수에 비해 적으나 아래의 그래프에 의하면 사이트 A의 월간 접속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3월 한 달간의 접속건수만을 봤을 때 이미 사이트 B의 접속건수에 1만 건 정도 밖에는 뒤지는 않을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 우기 전월대비 월간 접속건수의 증가 정도를 보면 사이트 B의 경우 전월대비 거의 5만 건 정도로 일정한 반면 사이트 A는 전월대비 거의 두 배 정도로서 사이트 A의 월간 접속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2004년 4월 이후 사이트 A의 접속건수는 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여 절대적 수치로서의 사이트 A의 총 누적접속건수가 사이트 B의 총 누적접속건수를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월간 접속건수의 추이 (단위 : 천건)



[창의적 사고력 문제]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규칙성 및 일반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어진 식과 관련된 수학 적 사실을 자유롭게 논술하여라.

$$(I) \quad 4 = 1^2 - 2^2 - 3^2 + 4^2 = 2^2 - 3^2 - 4^2 + 5^2 = 3^2 - 4^2 - 5^2 + 6^2$$

(출제 의도)

특수한 사례로부터 직관적 추측, 시행착오, 규칙발견, 귀납적 실험 등의 과정을 통해 일반적 사실로 확장 또는 일반화하고, 그것을 다시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채점 기준)

주어진 식으로부터 일반화해 나가는 방향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정답”은 있을 수 없으며 각자가 정한 일반화의 방향에 대하여 얼마나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기술하는가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될 것이다. 즉, **일반화에 대한 자연스런 동기부여** 및 그에 대한 **논리적 서술**이 주요 채점기준이 될 것이다.

(참고)

아래에 예시한 두 개의 예시논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일반화에 대한 예를 보여 주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시와 전혀 다른 논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예시는 단지 예시일 뿐이며, 수험생들에게 예시논술2 정도 수준의 논술을 제한된 시간 안에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시논술1)

(I)식의 다음에 다음과 같은 등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 4^2 - 5^2 - 6^2 + 7^2 = 5^2 - 6^2 - 7^2 + 8^2 = 6^2 - 7^2 - 8^2 + 9^2 = \dots$$

실제로 계산을 통하여 위의 각 식의 값은 4로 일정함을 직접 계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식은 일반식

$$(II) \quad 4 = n^2 - (n+1)^2 - (n+2)^2 + (n+3)^2, \quad (n=1, 2, \dots)$$

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 실제로 n 에 관계없이 그 값이 4로 일정함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우변}) &= [n^2 - (n+1)^2] - [(n+2)^2 - (n+3)^2] \\ &= (-1)(2n+1) - (-1)(2n+5) = 4 \end{aligned}$$

식 (II)는 자연수 4의 매우 특수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즉, 4는 처음에 나타나는 수가 임의의 자연수인 연속된 네 자연수의 제곱의 합 또는 차로 표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4에 대한 성질이 다른 자연수에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II)식의 양변에 2^2 을 곱하면 16에 대한 일반식

$$16 = (2n)^2 - (2n+2)^2 - (2n+4)^2 + (2n+6)^2, \quad (n = 1, 2, \dots)$$

을 얻고 좀 더 일반적으로 양변에 k^2 을 곱하면 일반식

$$(III) \quad (2k)^2 = (nk)^2 - (nk+k)^2 - (nk+2k)^2 + (nk+3k)^2, \quad (k, n = 1, 2, \dots)$$

을 얻는다. 이 식으로부터 임의의 짝수의 제곱은 등차수열을 이루는 네 자연수의 제곱의 합과 차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시논술2)

(I)식의 다음에 다음과 같은 등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 4^2 - 5^2 - 6^2 + 7^2 = 5^2 - 6^2 - 7^2 + 8^2 = 6^2 - 7^2 - 8^2 + 9^2 = \dots$$

실제로 계산을 통하여 위의 각 식의 값은 4로 일정함을 직접 계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식은 일반식

$$(II) \quad 4 = n^2 - (n+1)^2 - (n+2)^2 + (n+3)^2, \quad (n = 1, 2, \dots)$$

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 실제로 n 에 관계없이 그 값이 4로 일정함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우변}) &= [n^2 - (n+1)^2] - [(n+2)^2 - (n+3)^2] \\ &= (-1)(2n+1) - (-1)(2n+5) = 4 \end{aligned}$$

식(II)를 반복하여 적용하면 임의의 4의 배수는 연속된 자연수의 제곱의 합과 차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8 = 4 + 4 = (1^2 - 2^2 - 3^2 + 4^2) + (5^2 - 6^2 - 7^2 + 8^2) = \dots$$

이에 착안하여 4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 = 1^2 - 2^2$ 와 (ii)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임의의 $(4N+1)$ 꼴의 자연수도 연속된 자연수의 제곱의 합과 차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egin{aligned} 1 &= -3 + 4 = (1^2 - 2^2) + (3^2 - 4^2 - 5^2 + 6^2) \\ 5 &= 1 + 4 = (1^2 - 2^2 + 3^2 - 4^2 - 5^2 + 6^2) + (7^2 - 8^2 - 9^2 + 10^2) \\ &\vdots \end{aligned}$$

또, $3 = -1^2 + 2^2$ 과 (ii)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임의의 $(4N+3)$ 꼴의 자연수도 연속된 자연수의 제곱의 합과 차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egin{aligned} 7 &= 3 + 4 = (-1^2 + 2^2) + (3^2 - 4^2 - 5^2 + 6^2) \\ 11 &= 7 + 4 = (-1^2 + 2^2) + (3^2 - 4^2 - 5^2 + 6^2) + (7^2 - 8^2 - 9^2 + 10^2) \\ &\vdots \end{aligned}$$

이제 마지막 남은 $(4N+2)$ 꼴의 자연수 에 대한 것은 결국 “2를 연속된 자연수의 제곱의 합과 차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본인으로서 이 문제의 가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주어진 식과는 독립적인 별도의 문제로 보인다. 여기서는 그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그친다.

2004 수시 1 인문계 수리논술형 기출문제(풀이형)

I-1

함수 $f(x) = x - 1$ 와 $h(x) = x^3 - x^2 + a$ 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이 때, a 는 상수이다.)

- ① $g(x) = 1 + \int_0^x f(t)dt$ 를 구하고 $y = g(x)$ 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 ② $g(x) = 0$ 의 한 근이 $h(x) = 0$ 를 만족할 때, a 의 값을 구하시오.
- ③ x 축, y 축, $y = h(x)$ 의 그래프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②에서 구한 a 를 사용하시오.)

I-2

이차부등식 $4x^2 + 4x - 3 \leq 0$ 을 만족하고 행렬 $\begin{pmatrix} y & x^2 \\ x+3 & 1 \end{pmatrix}$ 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x, y 에 대하여, y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I-3

n 이 자연수일 때,

- ① 부등식 $\frac{x}{2} + y \leq n$ 을 만족하는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 ② ①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에 속하며 x 좌표와 y 의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x, y) 의 개수를 n 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I-4

함수 $y = x^2$ 과 평면 위에서 $b > a^2$ 을 만족하는 한 점 $A(a, b)$ 를 잡는다.

- ① 점 $A(a, b)$ 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그 직선과 포물선 $y = x^2$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 ② ①에서 구한 직선과 포물선 $y = x^2$ 과의 교점을 P 와 Q 라고 하자. 포물선 $y = x^2$ 위의 점 R 이 P 에서 Q 까지 움직일 때 $\triangle PQR$ 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R 의 좌표를 구하시오.

2004 수시 1 자연계 수리논술형 기출문제(풀이형)

II-1

- ① $0 \leq x \leq \pi$ 에서 곡선 $y = \sin x$ 의 접선이 직선 $y = \frac{x}{2}$ 와 평행하게 되는 곡선 위의 점 P 를 구하시오.
- ② 점 P 에서 곡선 $y = \sin x$ 의 법선과 y 축의 교점 Q 를 구하시오.
- ③ 선분 PQ , y 축, 곡선 $y = \sin x$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II-2

- ① 음이 아닌 실수 x 에 대하여 $F(x) = \lim_{n \rightarrow \infty} \sum_{k=0}^n \left(\frac{x}{n}\right)\left(\frac{kx}{n}\right)\sin\left(\frac{kx}{n}\right)$ 라고 할 때, $F\left(\frac{\pi}{2}\right)$ 를 계산하시오.
- ② $0 \leq x \leq 2\pi$ 에서 $F(x)$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II-3

공간 위에 네 점 $A(1, 1, 4), B(1, 4, 1), C(3, 2, 1), D(4, 5, 3)$ 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 $ABCD$ 와 평면 $x + y + z = 3$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① 점 D 의 주어진 평면 위로의 정사영 D' 의 좌표를 구하시오.
- ② $\triangle ABC$ 의 주어진 평면 위로의 정사영 $\triangle A'B'C'$ 의 넓이를 구하시오.
- ③ 사면체 $ABCD$ 의 주어진 평면 위로의 정사영은 어떤 형태의 도형인가?

II-4

세 점 $O(0, 0), P(1, 0), Q(0, 1)$ 로 이루어진 $\triangle OPQ$ 와 행렬 $A = \begin{pmatrix} t+1 & 2t \\ 2te^t & e(t+1) \end{pmatrix}$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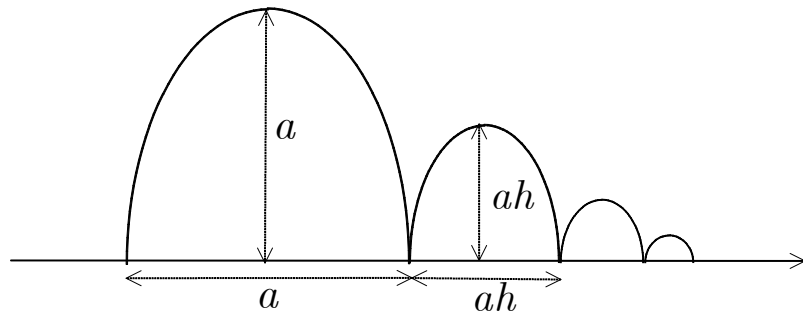
- ① $0 < t < 1$ 에서 고정된 t 에 대하여 $\triangle OPQ$ 가 행렬 A 로 나타내지는 일차 변환에 의해 옮겨진 도형을 그리시오.
- ② t 가 $0 \leq t \leq 1$ 사이를 움직일 때, $\triangle OPQ$ 가 행렬 A 로 나타내지는 일차 변환에 의해 옮겨진 도형의 자취가 생성하는 도형을 그리고,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2004 수시 2 인문계 수리논술형 기출문제(풀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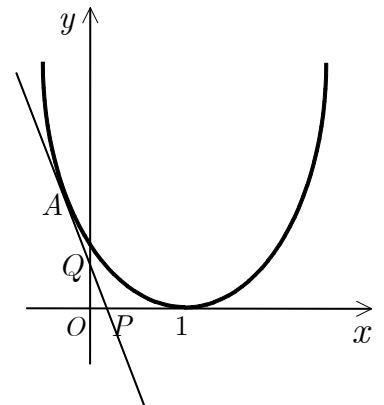
I-1. 이차함수 $f(x) = ax^2 + bx + c$ ($a \neq 0$) 가 $x = 1$ 에서 최소값 -2 를 갖고 $f'(0) = -2$ 일 때 함수 $f(x)$ 를 구하시오.

I-2. 최성국 선수가 축구공을 찼더니, 그 공이 최고 높이 a 미터의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최성국 선수로부터 a 미터만큼 멀리 떨어졌다가 튀어 오르내리기를 무한히 반복한다. 각 단계에서 공의 궤적은 포물선이며, 공이 튀어 오른 높이와 튀어간 거리는 그 전 단계에서 튀어 오른 높이와 튀어간 거리의 각각 h 배가 된다. (단, h 는 0과 1 사이의 상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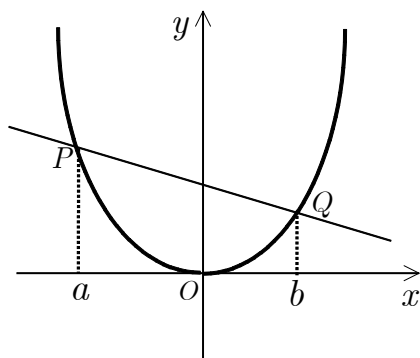
- (1) 공과 최성국 선수 사이의 거리가 수렴하는 값을 구하시오.
- (2) 공의 궤적과 지면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I-3. 포물선 $y = (x-1)^2$ 위를 움직이는 점 A 에서의 접선이 x 축의 양의 방향, y 축의 양의 방향과 각각 P 와 Q 에서 만날 때 $\triangle OPQ$ 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I-4. 포물선 $y = 2x^2$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a, 2a^2)$ 와 $Q(b, 2b^2)$ 가 있다. (단, $a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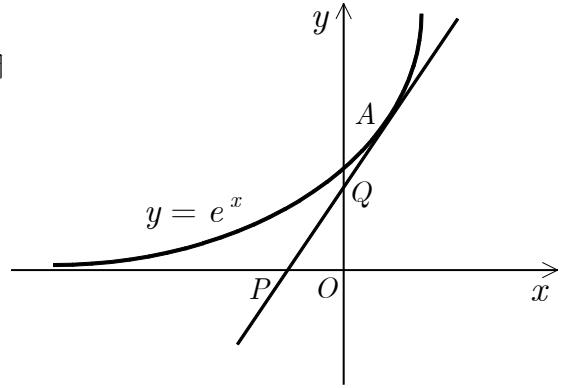
- (1) 주어진 포물선과 P 와 Q 를 지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frac{1}{3}$ 이 되도록 하는 a 와 b 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 (2) P 와 Q 가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일 때 P 와 Q 를 지나는 직선 위의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영역을 구하시오.

2004 수시 2 자연계 수리논술형 기출문제(풀이형)

II-1.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frac{1}{n+k}$$

II-2. 곡선 $y = e^x$ 위에서 움직이는 점 A 에서의 접선이 x 축의 음의 방향, y 축의 양의 방향과 각각 P 와 Q 에서 만날 때, $\triangle OPQ$ 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II-3. 세 점 $A(1,1)$, $B(2,1)$, $C(1,2)$ 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triangle ABC$ 가 있다. 행렬 $L = \begin{pmatrix} x & x^2 \\ 0 & y \end{pmatrix}$

(단, x 와 y 는 모두 0이 아닌 실수) 로 표시되는 일차변환에 의하여

A 는 A' 로, B 는 B' 로, C 는 C' 로 옮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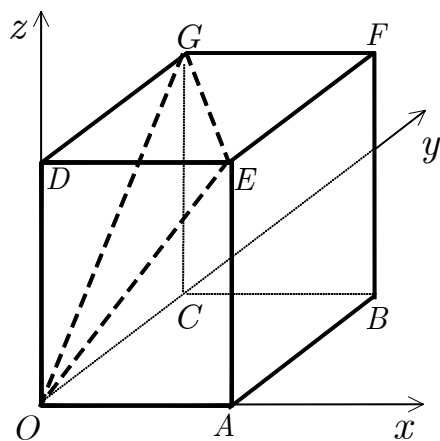
(1) 각 $\angle B'A'C'$ 가 60° 가 될 때 x 와 y 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 관계식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2) $\triangle A'B'C'$ 가 정삼각형이 될 때 x 와 y 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II-4. 여덟 개의 점 $O(0,0,0)$, $A(1,0,0)$, $B(1,1,0)$, $C(0,1,0)$, $D(0,0,1)$, $E(1,0,1)$, $F(1,1,1)$, $G(0,1,1)$ 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육면체가 있다.

(1) $\triangle OEG$ 의 무게중심과 점 D 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2) 네 점 O, D, E, G 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에 내접하는 구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2002학년도 정시모집전형 논술기출문제

<논제> 아래의 글 (다)는 현대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합리성이 잘 드러난 예이다.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에 나타난 합리성이 갖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대 사회의 합리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유의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제목은 쓰지 말 것.
3.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 안팎(±100자)이 되게 할 것.

(가)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서구 근대 사회의 진행 과정을 합리화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베버에게서 합리화는 두 가지 차원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문화적 합리화이다. 이 경우 합리화는 탈마술화, 즉 미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사고가 확대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합리화이다. 이것은 주어진 목적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의 확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 관료적 근대 국가가 모두 이 합리화의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합리화의 결과 근대 사회에서는 자율적인 인간과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직접적이고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출현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합리화가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나) 우리의 의지는 실제로 소망과 가치에 의해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것은 오직 수단 선택 및 목표 설정 대안들의 측면에서만 더욱 상세하게 규정될 수 있다. 관건이 되는 것은 — 자전거 수리이든 아니면 병의 치료이든 간에 — 오직 적당한 기술과 돈을 마련하는 전략이며, 휴가 계획과 직업 선택을 위한 기획이다. 예를 들면 합리적 선택 이론의 형태가 그것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물음이 실용적 과제들과 관련될 경우에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관찰과 연구, 비교와 계산이 적절하다.

— 위르겐 하버마스, 『담론윤리의 해명』

(다) 맥도날드는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나가는 것에 이르기까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인접한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고객이 차를 쉽게 댈 수 있도록 해 준다. 계산대까지는 몇 발자국이 채 안 되며, 가끔 줄을 서기도 하지만 음식은 대체로 빨리 주문되고 전달되고 계산된다. 그리고 매우 제한된 메뉴는 먹는 사람의 선택을 쉽게 하여, 다른 식당에서의 다양한 선택과 대조를 이룬다. 음식을 받으면 식탁까지 몇 걸음 걸어가는 곧바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식사를 마치면 머뭇거릴 여지가 없기에 고객은 남은 휴지, 스티로폼,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 가까운 휴지통에 버리고 자동차로 돌아가서는 다음 활동(대개의 경우 맥도날드화된) 장소로 이동한다.

근래에 패스트푸드점 경영자들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운전자용 창구의 설치가 좀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맥도날드는 최초의 운전자용 창구를 1975년 오글라호마 시에 설치했고, 4년 만에 전체 점포의 절반 정도에 설치하였다. 주차를 하고, 카운터까지 걸어가서 줄을 서고 주문하고 계산하고, 식탁으로 음식을 가져가서 식사하고, 또 식사 후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려야 하는 귀찮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는 대신, 운전자용 창구에서는 고객이 창구에 차를 세우고(물론 차도 줄을 서야 할 때가 있다) 주문과 계산을 마친 후, 음식을 받는 대로 다음 목적지로 향하면 된다. 보다 효율적이기를 원한다면 운전하면서 먹으면 된다. 운전자용 창구는 패스트푸드점의 입장에서 효율적이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차 공간, 식탁, 종업원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객이 쓰레기를 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별도의 쓰레기통을 설치하거나 정기적으로 쓰레기통을 비우는 사람을 고용할 필요도 없다.

—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2002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모집 논술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제되었다. 현대 사회의 효율성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인가? 효율성의 추구는 어떤 합리성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주제는 현대 사회에 나타난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다루고자 했다. 현대 사회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효율성의 사회이다. 현대 관료제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표준화, 관리화, 계층화, 통제화, 계량화 등의 효율성은 현대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근본 가치나 목적 의식을 상실할 때 심각한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예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철학 서적, 사회 비평서를 고루 선택하여 폭 넓은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시문은 막스 베버와 하버마스가 설명한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개념과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제에서는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맥도날드 햄버거의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현대 사회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했다.

이번 논술로 맥도날드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이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수험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익숙한 생활 양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해 봄으로써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능하게 했고, 개념적 추상화를 통해 구체적 현상에 대한 체계화된 판단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 논술의 문제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글 (다)는 현대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합리성이 잘 드러난 예이다.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에 나타난 합리성이 갖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대 사회의 합리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첫째 문장 “아래의 글 (다)는 현대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합리성이 잘 드러난 예이다”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효율성’을 ‘합리성’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다. (다)만을 보았을 때는 일차적으로 그 내용의 핵심어가 ‘효율성’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설정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합리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논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합리성’이라 한 것은 현대 사회의 지배적 합리성 유형인 ‘도구적 합리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 문장의 전반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에 나타난 합리성이 갖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다)에서 효율적, 다시 말해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가)와 (나)를 참조하여’라는 조건을 준 것은 수험생의 자의적인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러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가)와 (나)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합리성이 갖는 특성을 설명해야 한다. (가)에는 문화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가)의 구분을 기준으로 보면 (나)의 내용은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합리성’은 곧 ‘도구적 합리성’과 상통하는 것이므로 (다)에 나타난 합리성이 갖는 특성의 설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사회적 합리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문화적 합리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에 나타난 합리성이 갖는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답안이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장의 후반 “현대 사회의 합리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다)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도구적 합리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이 부분에서는 (다)의 경우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하여 비판해야 할 것이다. 이 때 특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거기에 나타나는 합리성에 숨어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비판하여 논술한 답안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담론윤리의 해명』(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은 현대 독일의 철학자이자 비판 이론가인 하버마스가 1991년에 발표한 글이다. 그의 두 대표작 『인식과 관심』, 『역사적 유물론의 재구성을 위하여』에서 다소간 좌파적인 사회 인식론을 펼친 하버마스는 이후 줄곧 이성적인 사회 관계의 구현을 위한 방법론적 절차를 모색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절차로 담론이라는 개념이 제시된다. 담론은 말이 오고 가는 과정, 즉 대화이고, 담론 윤리는 말하고 듣는 규칙, 즉 더불어 사는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이 중요한 것은 현대가 다원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목적들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어 내는 세계에서는 단순한 목적 합리성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리성만이 우리의 사회적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문으로 제시된 부분을 하버마스가 목적 합리성을 비교적 중립적인 어조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는 1994년 미국에서 출판된 사회 비평서로서 국내에 번역본이 나와 있다. 이 책은 현대성의 중요한 특징을 ‘합리화’(rationalization)로 보고, 합리화가 현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맥도날드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이 책은 젊은 지식인들에게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조지 리처는 메릴랜드 대학 사회학과 교수이며, 사회 이론과 일의 사회학 분야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로 무게 있는 저서들을 내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Expressing America: A Critique of the Global Credit Card Society (1996), The McDonaldization Thesis (1998) 등이 있다.



★ 고-연 커플들

“연세, 연세~ 도망가다 자빠져. 우하하하하♪” 가을이면 잠실벌을 흔드는 고대인의 응원가 ‘도망자’의 한부분이지요. 매년 뒤엉켜서 치고받는 고대와 연대. 정말 두 학교는 사이가 나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No! 비록 맞수로 만나는 고대와 연대지만 학기 초 연대와 의 학과 교류, 고연전 후 응원 뒤풀이와 기차놀이로 두 학교는 멀지만 무척 가까운 사이랍니다.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많다보니 두 학교를 오작교 삼아 열심히 만나고 있는 고-연 커플들도 많은데요. 재밌는 것은 이런 고-연 커플들도 고연전 때는 호적수가 되어 만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답니다. 고연전 마지막날 기차놀이. 사귀고 있던 연대 남학생과 고대 여학생이 고대 앞 참살이길에서 열심히 뛰며 응원을 하다가 여학생이 넘어져 무릎이 까졌답니다. 급한 나머지 연대 남학생 여자친구를 업고 약국으로 출동. “아저씨 연고 주세요!”를 외쳤다는데.. 이때 고대 여자친구가 부상 중에 던진 한 마디 “어우, 야~아, 고대 앞에 연고가 어딴어. 고연이지.” 신촌골과 안암골을 참깨 냄새로 진동하게 하는 고연 커플들. 앞으로도 많이많이 생겨나서 예쁘게 사랑하시길. 그리고 꼭꼭!! 2세들은 고대로 보내주시길 *^^*

★ 고대인이 되는 4관문

‘수능통과’만으로 진정한 고대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고대생의 4관문을 다 거쳐야 안암골 호랑이로 태어나는 법!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발식’이다. 사발식은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바로 토해내는 식으로 진행되며 일제시대의 잔재를 토해버린다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이 때는 듣기만 해도 걸쭉한 막걸리 찬가를 부르면서 사발식이 진행되는데 비록 참여여부야 자유이나 막상 막걸리 찬가를 부르노라면 사발식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감동이 밀려오기도 한다. 물론 환상적인 FM(고대생만의 자기 소개법^^v)은 필수다.

두 번째 관문은 ‘4.18마라톤’이다. 하루 먼저 거리로 나서며 4.19의 도화선이 되었던 자랑스런 고대인의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받자는 데서 시작된 이 행사는 학교를 출발해 수유동 국립 4.19묘지까지 진행된다. 중간중간 재빠른 깃들이들이 육교에 올라가 과거를 흔드는 장면은 그야말로 예술~. 행사의 성격상 팔팔한 새내기들이 들끓는 게 보통이어서 가끔 마음만 새내기인 고학번들이 눈총을 받기도 한다.

세 번째 관문은 2만 고대생의 마음을 한달은 족히 흔들어 놓는 ‘고연전’. 잠실벌을 붉은 물결로 달구어 놓는 고연전, 함께 부르는 응원가와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함성, 승리를 기원하는 간곡한 바램. 고연전이 있는 한 고대인의 가을은 영원한 월드컵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관문! 네 번째, 그 험난하고도 모진 터널을 빠져 나와야 하는 마지막 관문은 바로 ‘동묘앞창신보문’이다. 그 어두운 터널에서 한줄기의 빛을 사모하면서 견뎌내야 하는 마지막 관문. 아 이 어찌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학교 앞에 지하철역이 있다’며 자랑하던 Y대생들의 기를 꺾어놓은 마지막 관문 동묘앞창신보문. 그 관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하철 노선도를 참고하시길^^;;





2003학년도 정시모집전형 논술기출문제

◎ 다음 각 제시문에 나타난 ‘삶’을 개념화하여 설명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비교하여 논술하시오.

<유의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제목은 쓰지 말 것.
3.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 안팎(±100자)이 되게 할 것.

(가) 과학은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을 만한 지식을 추구하고,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과학의 핵심은 자연은 물론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티리언 퍼플의 색깔이 어떤 분자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떻게 그 분자를 변형시켜서 더 밝은 자주색이나 파란색을 얻을 수 있을까를 알아내려는 노력이 바로 그런 관찰에 해당한다.

과학자들의 세계는 모든 복잡성이 분해되어 단순화된 세계이다. 이것을 수확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자는 흔히 발견이나 창조의 과정에서 자신만의 연구 세계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그 한정된 세계 안에서는 자신의 결과가 흥미롭고 놀라운 것이며, 모든 것이 분석 가능하다. 그런 세계에서는 언제나 답이 존재한다. 로열 퍼플 염료 분자의 구조를 밝힐 수도 있고, 동물원에 갇힌 팬더가 번식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아낼 수 있다. 과학자들은 하나의 관찰 또는 현상에 기여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재능 있고 잘 훈련된 과학자라면 분리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 섹스투스에게서는 친절을 배웠다. 또 그로 인해 부성애로 다스려지는 가정의 전형을 알게 되었다.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사상을, 거만에 물들지 않은 근엄함을, 친구의 생각을 중히 여기고 그 희망을 따르는 마음씨를 배웠다. 그리고 무식한 무리들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다) 子曰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공자가 말하였다.

“유야! 네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라) 로마인들은 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즉 도로를 어떻게 닦고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로마 도로의 연구성은 오늘날에도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20세기를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도 수백 마일의 로마 도로는 여전히 견제하고 있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로마의 남쪽에서부터 나폴리와 브린디쉬까지 갈 수 있는 아피아 가도는 오늘날에도 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로마인들은 집요한 끈기를 가지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배수구를 만들기 위해 땅을 깊이 파고 모래와 자갈 그리고 잘게 부순 돌로 도랑을 채웠다. 그 다음에 도로의 중앙부는 돌을 잘라서 만든 벽돌로 딱 맞게 짜 맞추어 사람, 말, 마차의 바퀴가 밀리지 않도록 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벽돌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도로의 포장 재료로 쓸 수 있을 만큼 단단하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쉴 새 없이 배우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앎’은 쌓이고, 대를 넘어 전수되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현대 문명의 근간을 형성해 온 앎의 문제를 우리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얼핏 보아도 앎이라는 말에는 매우 다양한 쓰임이 있다.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앎이고,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것도 앎이고, 사과가 떨어지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도 앎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앎을 바탕으로 수력 발전소를 세우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우리의 앎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 지혜도 앎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얻는 깨달음이 있다면 이 역시 하나의 앎이다.

네 개의 제시문은 이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앎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개념화시켜 표현한다면 과학자의 앎, 이치에 따라 삶을 운영하는 실천적 지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적 앎, 그리고 앎을 활용하여 유용한 결과를 끌어오는 도구적 지식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여러 앎들을 비교하고, 이들이 현실 사회에 대해 갖는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중요성을 저울질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는 보다 높은 차원의 앎이 될 것이다. 이번 고려대학교 정시 논술 시험에서는 바로 이러한 앎에 대해 물었다.

논제는 제시문에 나타난 네 가지의 앎 중에서 현대사회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를 선택하여, 나머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것이다. 이는 물론 제시된 앎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나머지 셋이 비교적 덜 중요해서 경시되어도 좋다는 의미도 아니다. 논제의 요점은 수험생이 여러 앎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종합적 사유를 통해 도달한 결론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것은 대학 교육에서 꼭 필요한 균형 있는 판단력과 논리적 사고력의 증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연습이다. 왜냐하면 앎의 전당인 대학이 가르치는 것은 확정된 정보로서의 앎이 아니라, 정보를 종합하고, 나름의 정리된 관점을 형성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번 고려대학교 논술 시험이 종합적 지식인의 배출이라는 교육 본연의 이상을 일깨우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이번 논술 문제는 다양한 ‘앎’과 관련된 동서양의 글을 분석하여, 앎의 특성과 현대사회에서의 앎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볼 것을 요구한다. 앎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description)을 추상적 개념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과 어떤 앎이 중요한가에 대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논제는 각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앎을 개념화하여 설명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앎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비교하여 논술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은 먼저 제시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가)를 과학적 지식으로, (나)를 삶의 지혜로, (다)를 자기성찰적 앎으로, 그리고 (라)를 도구-기술적 지식 등으로 개념화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앎이 지니는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험생들은 제시된 네 가지 앎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다른 앎과의 비교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 때에 서

로 다른 속성을 지닌 앎들의 장단점을 평가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특정 앎의 중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앎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창의적으로 논술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로알드 호프만의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The Same and Not the Same』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알드 호프만(Roald Hoffmann) 교수가 1995년 출판한 책이다. 호프만 교수는 코넬 대학교 화학과 석좌교수로 이론화학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는 이 책에서 화학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화학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의 사색의 결과이며, 삶의 의미와 올바른 태도를 제시한 책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이 책을 전쟁의 와중에서 쓰며, 외부의 압력이 미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휴식을 취하려 했다. 그는 자연의 원리, 즉 운명에 순응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을 것을 주장한다.

공자의 『논어(論語)』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전하는 문헌으로, 공자와 제자들 간의 문답을 주로 하고, 공자의 발언과 행적, 그리고 제자들의 발언 등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이 간결하고도 함축성 있게 기록되어 있다. 공자가 보여준 구도(求道)의 자세, 관용과 인(仁)을 중요시하는 교육 태도, 그리고 인도주의 사상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도덕설(道德說)이 잘 묘사되었다. 모든 내용이 인생 경험과 사려 깊은 성찰을 통해 얻어진 깊은 지혜의 결정(結晶)으로 음미할수록 가치가 있는 교훈들이다.

찰스 반 도렌의 『지식의 역사 A History of Knowledge』는 찰스 반 도렌(Charles van Doren)이 1991년에 출판한 책으로, 인류가 남긴 위대한 지식 형성의 과정을 되짚어 보고 있다. 저자는 1975년부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편집장을 지냈으며 지식의 진보를 보여주는 책을 써왔다.



2004학년도 정시모집전형 논술기출문제

◎ 네 개의 제시문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유의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은 한글로 작성할 것.
3.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100자가 되게 할 것.

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며 괴테가 원래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괴테라는 천재적인 작가의 정신의 행로를 따라가며 그의 삶과 문학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실제 괴테가 처했던 상황에서 그의 글을 읽는다. 이렇게 독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대하는 옳은 태도이다. 그렇지 않다면 각자의 입장에 따른 주관적 왜곡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삶과 무관한 저자의 의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물을 수 있다.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나름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는다. 모든 고전은 시대마다 고유의 관점에서 재해석되며,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다. 해석은 자유로운 창조이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보태지 못하는 저자의 원래 의도는 죽은 사실에 불과하다.

나) 랑케는 오로지 실재했던 사실만을 기술하고자 했다. 사료(史料)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통해 그는 문헌 안에서 역사적 사실만을 가려내려고 했던 것이다. 랑케의 모든 저작에는 역사적 객관성을 향한 강한 의지와 동력이 엿보인다. 그는 언제나 무한히 풍부한 사건들로부터 객관적·역사적 연관을 찾되 형이상학적인 역사 구성의 우를 범하지 않는, 실증적인 탐구 방법을 추구했다. 즉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랑케는 자신의 현재에서 눈을 떼고,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다) 일군의 과학철학자에 의하면, 과학지식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라 특정한 '과학하는 방식'을 공유하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지식일 뿐이다. 여기서 과학하는 방식은 동일한 신념, 가치관, 연구 방법, 검증 방식 등의 집합을 말한다. 이 방식에 부합하는 가설만이 과학적 탐구의 대상 세계에 대한 정당한 설명으로 공인을 받는다. 즉 과학지식은 과학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패러다임 위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합의 내용물이다.

라) (피고 갑(甲)은 피해자 을(乙)을 폭행하여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와 변호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만으로 갑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대립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 사 :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는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배심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피고와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피고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같은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일부 제시되고 있지만, 그 증거들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배심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검 사 : 법정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현명한 배심원 여러분이 합리적 이성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려내고, 그에 기초하여 공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 저 역시 실제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신(神)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제적 진실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배심원 여러분은 오로지 자신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증거의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서 합의로써 사실을 올바르게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평의를 위해 휴정을 선언한다.)

2004학년도 정시모집전형 논술해설

2004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모집 논술 시험은 ‘사실과 해석’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끝없는 해석의 과정이다. 언어적 대화는 물론이고, 비언어적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과거로부터 전수된 여러 사료와의 만남, 그리고 법정 진술의 청취 역시 하나의 해석이다. 이 모든 해석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 내지 진실이다. 즉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은 해석과 사실 간의 일치인 것이다.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모든 객관적 해석과, 실증주의 역사학,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의 이념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복잡성은 유한한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옳은 해석과 그릇된 해석의 구분 기준으로서의 최후의 사실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우리는 객관적 해석을 통해 저자의 원래의 의도를 찾아낸다고 믿고, 사료 비판을 통해 과거의 사실을 있던 그대로 복원한다고 생각하고, 또 엄격한 법정 절차를 거쳐 진실이 해명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저자의 원래 의도라고 믿는 것도 실은 우리 시대의 관점과 표상 방식에 의해 재해석된 것이고, 주어진 사료 역시 순수한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해석된 자료이며, 법정의 판결도 배심원들의 주관적 의견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없고 오로지 여러 주관의 다양한 해석만이 있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등장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객관주의’나 ‘주관적인 상대주의’ 모두 우리 인간에게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가능성들이다. 오히려 순수한 사실을 추구하면서도, 늘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관점을 넘어서 수 없으면서도 순수한 사실에 대한 추구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는 인간은 바로 이 두 극단적 가능성의 중간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이번 논술 시험은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수험생이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전개할 수 있는지를 묻은 것이다. 실제로 4개의 제시문은 ‘사실과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제시문은 문학 작품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에 관한 글이다. 첫 번째 태도는 타인의 문학적 표현을 대하며 각자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자의 삶의 맥락에서 원래 저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를 파악하려는 태도이다.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해석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주관적인 곡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뜻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문학 작품이 나에게 대해 갖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시문에 드러난 두 번째 태도는 문학 작품을 나의 현재에 적용하는 창조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보다는 나에게 대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때의 적용도 나 개인만의 전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내가 속한 시대의 문화와 관점에 입각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즉 나의 창조적 해석은 동시대인들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객관적, 주관적 해석과 구분하여 상호주관적 합의에 입각한 해석이라 부른다.

이 두 가지 태도의 전형적인 예를 제시문 나)와 다)가 보여주고 있다. 나)는 순수한 사실 확정을 위해 노력하는 실증주의 역사학자의 엄격한 학문적 태도를 보여주는데, 만일 수험생이 이 태도에서 단순한 사실 맹신주의를 넘어 부단히 사실을 추구하며, 사실에 다가가려는 역사학자의 성실한 태도를 발견한다면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한편 다)는 흔히 외부 세계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진술의 체계로 알려진 과학적 지식조차도 과학자 공동체 내부의 상호주관적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학철학적 입장이 허무주의적 상대주의라기보다는 여전히 상호주관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 제시문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충돌하는 법정의 사례이다. 검사와 변호사는 각각 사실 자체가 말하게 하려는 입장과 사실은 상호주관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대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제시문은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입장의 배후에 숨은 철학적 함축인데, ‘인간의 근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말라는 요청’이 그 하나이고, ‘우리는 결코 순수한 사실 자체에는 도달할 수 없고, 다만 상호주관적 합의를 통해 사실에 부단히 접근해 가고 있다는 지적 겸손’이 다른 하나이다. 이 두 가지는 주관적 상대주의의 허무성과 사실 맹신주의의 허구성을 동시에 경계해야 하는 인간적 존재자에게는 모두 중요한 철학적 교훈이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자로서 사실을 추구하는 인간은 사실의 마지막 소유자도 아니지만, 또한 사실을 포기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과 해석’의 관계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해석의 갈등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인간은 요청으로서의 사실과 현실로서의 해석의 사이를 오가며 부단히 사실에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논술 문제를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해석의 갈등으로 보고 둘 간의 통속적인 절충을 꾀한 답안이 있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인간은 그 두 극단의 중간에 놓인 존재자이고, 이 가능성에 대한 유연한 사고야말로 출제진이 수험생에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 다), 라)는 출제진이 집필한 것이고 나)는 W. 딜타이의 『정신과학에 있어서 역사적 세계의 건립』에서 취한 것이다. 이 제시문 역시 출제진의 필요에 따라 편집된 것임을 밝혀둔다.